



순복음 LIFE

2022년 표어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시 65:10

발행일	2022.05.01
발행인	한승권 목사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원장	문서 위원회



목 차

1	-----	이달의 간증
3	-----	나 이렇게 산다
6	-----	이달의 기도
8	-----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0	-----	쏫-터뷰
11	-----	감사릴레이
12	-----	10년후 나에게
14	-----	엄마의 편지
16	-----	구역장 일기
18	-----	주일학교 소식
20	-----	대학 소개
22	-----	성경사건
24	-----	오늘의 라떼
25	-----	틀린그림찾기
26	-----	시사용어, 성경단어
28	-----	성경퍼즐
30	-----	전도대회
31	-----	어버이날 선물
32	-----	스승의 날 special
36	-----	부부의 날
38	-----	부활절 삼행시 결과
39	-----	카네이션 만들기
40	-----	일정 & 공지사항

이달의 간증

장지은 청년

샬롬! 당진순복음교회를 사랑하는 청년

장지은입니다. 간증하고 싶었으나 방법을 모르던
제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가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기대하시나요? 저는 이번 간증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끄셨
음을 믿습니다. 저의 2021년도 소원은 '이사'와 '취업'이었습니다.
불어난 짐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 좁은 원룸. 4년 동안 불어
난 짐처럼 월세 지출도 늘어만 갔습니다. 지금보다 넓고 지출을 줄
일 수 있는 전세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매일 이사
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주세요.'로 맺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
습니다. 꿈을 위해 강의를 듣고, 수강 신청을 하고, 퇴근 후 공부하며
꿈을 이룰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매일 취
업을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주세요.'였습니다.



'올해에는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21년도 연말에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월에는 간구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넓은 거실과 베란다가 있고, 예쁜 풍경과 별이 잘 드는 투룸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물론 기도할 때 집 위치는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후회하는 중입니다. 수중에 가진 돈으로 전세자금과 이사비용까지 딱 맞게 사용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생긴 우여곡절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즉각 해결해 주셨기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한 달 뒤인 12월에는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늘 기도해왔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취직이었습니다. 일을 관두고 멀리 이사를 온 참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달에 한 번 구직 활동했는데, 2년 전 떨어진 이력서를 날짜만 고쳐서 같은 회사에 제출한 것이 취업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꿈과는 상관없는 이 회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 이사를 통한 이끄심의 체험이 없었다면, 이번 취업의 결과를 간절함의 부족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제 능력만 닦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뜻을 구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때 모든 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또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체험해보세요. 삶에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막.소
-우리집 막내를 소개합니다.

임경아 권찰

우리집 막내 미소가 예쁜
멋쟁이 송우입니다.



박순옥 권찰

애교가 많고 저희 가정에 기쁨이 되며
항상 밝은 웃음을 선사해주는
막둥이 우진이를 소개합니다.



윤희자 전도사님

약한자로 태어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집에서 힘으로는
가장 파워있는
막내 산지 랍니다~



원재옥 권사

저희 4딸 중 막내는 진경이입니다.
어려서 부터 찰떡 붙어 다녔지요.
새벽예배, 장거리운전, 아침운동 등등 ^^





전수현 집사

우리집 막내 슬예는요.
지금 4학년 이고요
애교가 참 많답니다.



이영주 사모님

우리집 막내 예성이는요
키는 제일 크지만 막내여서 누나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받고 있습니다.



다음달 주제는

Q 꽃보다 성도님(꽃과 함께 찍은 사진) !

이윤경 집사님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기도

김동연 안수집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자녀삼아 주시고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5월의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복하는
이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는 나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등
전 영역을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도 모든 가정마다 말씀위에 든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공경받으며,
 젊은 부부들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되게 하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날마다 키와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신앙의 전통있는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전환의 공간으로 만드신
 하나님 성전에 많은 무리가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선포되어 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와 회복되어
 삶의 태도가 선교가 되어지게 하소서
 5월의 푸르름으로 허락 하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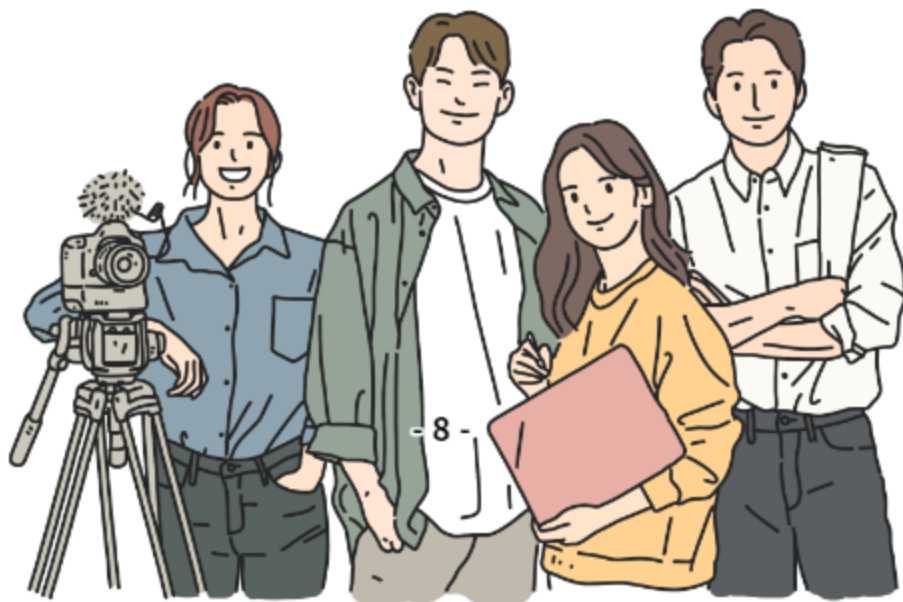
미디어 위원회



이진영 집사



이성재 청년



'미디어 위원회' 에서 하는 일은?

1. 교회의 각종 행사 촬영 사역
2. 교회의 촬영 영상,
사진 보관 및 자료 공급 사역
3. 좋은 영상물 찾아 보급 사역

각종 촬영된 사진은 교회 서버에 보관됩니다.
핸드폰에 교회 서버 ipdisk 어플 설치 후
로그인 하시면 핸드폰으로도 이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해주세요.



장명희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교회성도 쑥-터부

Q 인생에 있어 집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으신가요?

A 인생을 살아가는 스승은 엄마입니다~ 엄마의 삶은 비록 힘드셨겠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잘 양육시켜 주셨기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어 주시고, 잘 양육시켜주신 목회자분들이십니다. ^^

Q 올해 기도 제목 중 하나인 둘째 손주 소식을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A 희열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에 주신 응답이라고 느꼈거든요~~~

Q 찬양에 달란트가 많으신데 가족 특송을 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찬양과 이유 말씀해주세요.

A 가족 특송 이라기보다 부부로 맺어 주셔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서로에게 감사하다 표현되는 찬양이 있는데 제목이 '당신을 내게 보낸 건' 이란 찬양이에요^^

Q 집사님은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있으신가요?

A 사랑하는 내 딸아너로 인해 기쁘고 행복하구나 잘하고 있다

Q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격이 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친절엄마가 180도 바뀌었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내가 날 비춰봤을 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상대방이 실수하고 배신할 땐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으로 그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정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할레이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한 일과 사람들이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중 제일은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지에 취업하게 되면서 매주 당진에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시다.

지금은 차가 있어 편하지만 없었을 때,

매주 3시간씩 버스를 타고 왕복하는 것은 버거웠죠.

교회에서는 밝은 모습이었지만

집에 가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시다.

그럴 때마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습시다.

지금은 집에 올 때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시다.

요즘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ㅎㅎ
자상한 아빠, 멋있는 엄마, 친구 같은 오빠, 귀여운 산지까
지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년 후 나에게



김형진 안수집사

10년 후, 나의 모습….

사계절이 앞으로 열 번은 변해야 하는 시간이다.

먼저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고맙고 감사하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겠지.

지금처럼, 내 옆에는 인성자 집사가 있어서 신앙과 삶을

항상 조정해 주며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신앙의 열정과 삶의 열정은 지금처럼 강건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 육체는 늙어 약해져 있겠지만

정신적 연령은 더 낮아졌을 수 있겠지 .

10년 후에도 여전히 청바지에 셔츠, 티를 즐겨 입고,

머리는 백발로 많이 변해 있을 것 같다.

농담도 아재 개그도 더 잘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도 당진순복음교회의 확실한 성도로써

믿음의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한다.

물론 그때가 되면 지금의 모든 성도님과 학생, 청년, 유초등부와

목회자님은 교회와 지역에서 더 큰 일을 하시고 계실 것 같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에

당진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들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낌없는 신앙의 투자로 성장과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 하리라.

나는 개인적으로 50대 이후에는 신앙적인 면에서,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세상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기를 소망한다.

10년 후의 모습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더욱 함께 준비하는

시간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10년 후에도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나의 삶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희를 소개합니다.

조은희 집사

- ▼ 이름 : 이주희
- ▼ 이름의 뜻 : 보배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 ▼ 생년월일 : 2016년 7월 4일(7살)
- ▼ 주희의 성격 : 배려심이 많고 말을 잘 들어준다.
- ▼ 주희가 좋아하는 색과 만화 : 분홍색, 티티체리, 퍼피구조대
- ▼ 주희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 아기 예수님의 탄생, 노아
- ▼ 주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이야기 : 요나 이야기
- ▼ 좋아하는 반찬 : 계란찜, 고기, 햄
- ▼ 싫어하는 반찬 : 질긴 음식, 처음 접하는 음식





주희를 위한 엄마의 편지

사랑하는 엄마 딸 주희~

엄마가 주희한테 편지를 쓰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 주희가 말을 조금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은 안 듣고 울어서 주희가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주희가 엄마한테 그랬지? 엄마도 처음이야?? 그래서 엄마도 막 웃으면서 처음이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한 데 주희가 벌써 7살이 되었다니.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하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긴다는 사람들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요즘이야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고 은연중에 바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래도 주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네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엄마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친구들과도 위에 언니 오빠들과도 아래 동생들과도 배려하며 잘 지내는 우리 주희 가끔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다가 주희가 상처받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희에게 지혜도 지식도 부어주시니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 낼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줘~ 항상 동생한테 치여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누구보다 든든한 누나가 돼서 동생도 챙기고 예뻐해 주는 우리 주희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엄마가 그랬지. 그래서 우리 주희가 힘들거나 기쁘거나 무언가 가지고 싶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가지고 싶은 것도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희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

하나님께서서 엄마, 아빠에게 맡겨주신 선물 우리 주희 너무너무 사랑해~ ♥♥♥ 우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자~

주희를 응원하는 엄마가

구역장일기



송미정 구역장

2022. 04. 15

아침에 눈을 뜨고 가만히 누워 오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일상에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누굴 만날지, 두려움도, 기쁨도 생각 속에 잠깐 잠기어 본다.

양치하며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본다. 벚꽃처럼 내 얼굴로 화난 표정과 밝은 미소로 환하게 웃어본다.

역시 웃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하루가 시작된다.

줄린 눈을 비비며 출근 준비하는 민성이와 중학교 2학년인 다히는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나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왔다. 요즘 운동하려고 마음먹고 50분을 걸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힘은 들지만, 건강을 생각해이지!!

하천을 따라 걸으며 줄줄 흐르는 시냇물도 그 속에 어우러지는 풀과 돌들도 매일매일 새롭다.

걷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다. 찬양을 들으며 큰 소리로 불려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참 행복한 아침 시간이다.

긴 직장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생긴다.

종종 징징거리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참 이쁘다.

정신없이 직장 시간을 마무리하고 성전 밥하기를 하기 위해 교회로 향한다.

오늘은 화요일!

매주 화요일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

길지는 않지만, 가정과 자녀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준다.

배머먹는 날도 있지만 놓치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오늘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는 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한다.

연세가 많으셔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 구역장님 덕분에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챙겨 주시는데 건강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늘 저에게 힘을 주시는 이화순 집사님.

에너지 뱅-뱅- 언제 어디서나 저를 보면 “구역장님!” 하며 소리 질러주는 김정임 집사님. 집사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없는 우리 이경애 집사님.

그러도 구역장이 권면하면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따라주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늘 전화하면 챙겨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강경옥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소망 구역장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구역장의 사명도 오늘 잘 마무리하며 뿌듯한 하루다.

이른 저녁을 먹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정해놓은 말썽을 읽고 나니 정신 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했어.’라고 내 어끼를 두드리주며 눈을 감고 잠시 묵상기도 해본다.

피곤한 몸을 누이니 너무 좋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내일도 화이팅!!





주일 학교 소식

다니엘 유초등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만큼 어려운 친구를 도와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필요치 않는 선의로 상대방을 상처 주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적인 도움이 아닌 정말 필요에 의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딸기 철을 맞이해 아이들과 함께 딸기밭에 가서 딸기 따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파서 먹느라 바빴지만 맛있는 딸기를 먹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딸기잼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빵도 자르고 잼도 발라 보면서 부모님께 드릴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심한비' 6살이고 조은희집사님, 조은혜 권찰님의 조카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수기사단 정보대대

김병연 청년 (26살)

ROTC 소개

ROTC는 대학교 1-2학년에 선발 과정을 거쳐 3-4학년 동안 훈련 및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장교로서 임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ROTC 선택 이유

1번째는 장교로 군대에 가는 경험이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ROTC로 복무를 하게 되면 의무로 하는 군 복무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2번째는 복무기간입니다. 장교로 입대를 하는 방식에는 7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4가지는 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로 의무복무기간은 각각 5년, 10년, 2년 4개월, 3년으로 장교 중에서는 가장 짧은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지만 장기 군 복무에는 크게 뜻이 없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ROTC도 장기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 실수령 1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병 월급 50만원에 비교 시 큰 수치입니다. 달마다 100만원 이상을 더 벌어가게 되어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ROTC 후 진로

ROTC는 1학년 혹은 2학년에 총 2회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1학년에 붙으면 2학년 때는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총 3개의 선발 절차를 통해 선발합니다.

1차는 필기시험 2차는(체력 및 면접), 3차는(신원 조회 및 종합 득점 평가)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학 성적도 반영되니 ROTC를 준비하는 사람을 대학 성적에도 신경을 쓰는 게 편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임관을 하게 되면 대학교 3-4학년동안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군사 훈련받고 졸업 후에 소위로서 임관을 하게 됩니다. 3-4학년에는 군사학을 학기당 3학점씩 이수해야 하며 종강 시즌에는 총 3회 훈련 (기초군사훈련, 하계입영 훈련, 동계입영 훈련)을 거쳐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 후에는 2년 4개의 복무기간 동안 군 복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ROTC 복무 중에 만난 주님

저는 복무 기간에 초임 소위라면 겪을 어려움들은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님께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장교 부사관 간의 기싸움 말 안 듣는 용사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중대장 등등을 겪으면서 항상 주님께서는 용사들이 말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시거나 중대장님께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거나 하는 등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내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5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남은 이 시점에도 어려운 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며 군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성경사건 배워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으며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이름이 야베스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은 야베스가 신앙적으로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겪었던
고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포로생활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수고로움’이라는 뜻이 담긴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기도의 힘도 잃고 신앙도 떨어진 미약한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런 때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일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으며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야베스 당시의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빼앗긴 상태였지만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이 떨어졌을 때는 당연한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라떼 - 이윤경 집사



집사님의 어린시절 어린이날은 어떠셨어요?

저희집은요 어릴 적 가난했어요. 2남 3녀, 5남매였고 식구가 일곱식구였거든요. 엄마는 늘 채소를 파시러 장에 나가셨고 아빠는 이씨 집안 땅 밭에 농사를 지으셨어요. 살림살이가 이러니 엄마 아빠도 어린이날에 선물 등을 챙겨주고 싶으셨겠지만 여의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어린이날 선물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은 어린이날을 챙겨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농사짓는 집은 손에 호미 들 힘만 있으면 밭에 가서 풀을 매는 등 집안일을 도왔어요. 이제 와 자수하자면 사실 저는 뻥질 스타일이라 일을 잘 안 했어요. 휴일이면 공부한다고 연필 붙들고 있거나 학교 가거나 했지요. 그래도 항상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 따라 콩밭에도 가고 동부밭에도 가고 풀도 매고 콩도 따고 했지요. 그런데 어린이날 만큼은 엄마가 일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에 짜장면 사주듯이 어린이날이면 항상 콘을 사주셨어요. 부라보콘요^^ 그 당시 투게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엔 부라보콘이 젤 비쌌어요 200원! 엄청 비싼 가격이지요. 그래서 평소엔 생각할 수도 없던 부라보콘이었답니다. 그걸 어린이날 선물로 엄마가 사주신 거죠. 얼마나 맛있던지요. 아껴먹느라 녹여 먹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라콘을 먹을 수 있었던 어린이날이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라보콘을 좋아하는답니다. 차디찬 아이스크림 부라보콘이 제겐 너무 나도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이거든요.



틀린 그림 찾기

5개



Preview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없애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기 위해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권리 중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길거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장벽을 포함한다. 이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에어 앰불런스

‘에어 앰불런스(Air ambulance)’는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로,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데 사용된다.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의 역할을 띠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응급실’에 비유된다.

지옥고

‘지옥고’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말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열악한 주거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혼인·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루즈루즈 게임

‘루즈-루즈 게임’은 ‘lose(잃다, 패하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양측 다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흔히 양측이 이득과 성과를 보는 상황을 ‘윈윈 게임’이라 하는데, 루즈루즈 게임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2023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협상은 ‘윈윈(win-win)’이 아닌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었다고 분석한다. 양측 모두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성경 단어 Bible

오르(οἶν)

‘오르(οἶν)’라는 것은 마오르라는 어떤 도구로 빛을 내라 하십니다.
호스(φως)이라는 단어는 전부 ‘말’과 관련이 있다.-밝아지다, 밝다, 빛나다
히브리어 ‘오르(οἶν)’는 ‘마오르(מאור)’로 빛을 내는데
그 뜻은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스코토스(σκότος)

어두움. 스키타(σκία에서 유래;그늘,그림자)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테사우로스(θησαυρός)

보배, 어두운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나스타시스 (αναστασις)

‘위에, 상부’를 뜻하는 접두어 ανα [ana ; 아나]와 ‘일어서다, 굳게 세우다’의 뜻을 가진
어간 ἵστημι [histemi ; 히스테미]가 합성된 동사형 단어 ανιστημι [anistemi ; 아
니스테미]에서 유래된 여성 명사형 단어임. 헬라어의 어원에 따르면 ‘하늘, 즉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며 우리말 어원으로는 부활(復活)이 ‘다시 살다’라는 뜻
임. 그러므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뜻함. 가장 강력한 능력의 결과인 부활이 헬라어로 남성 명사
가 아닌 여성 명사라는 것은 이 단어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임.





				1					
				아		2	플		틱
			3	우	나				
	4	도				5	6	소	리
7	로						떠		
	8	상					9	시	10
						11	지		기
						닷			
						12	나		

가로

- 이 시대에는 0000이 없어서 피리를 나무로 만들었다.
- 우리가 사는 나라! 0000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니?
-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잔치에세 물을 000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셨단다.
- 2009년에는 소와 할아버지가 나오는 영화 0000가 큰 인기를 끌었다.
- 예수님은 소보다 작은 당나귀를 가끔 타셨다는데, 당나귀도 한번 타보고 싶지 않니?
- 예수님도 가끔 00하실 때는 바닷가에서 쉬기도 하셨단다.
- 여름철 물 위에서 타는 스키.
- 모스크바가 수도인 추운 나라.
- 여자는 치마, 남자는?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만 00를 입는 건 아니란다.
-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마을의 이름은?

세로

- 예수님은 000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어.
- 꽃을 영어로 000라고 하지?
천국은 000로 가득할 거야.
- 지구와 해와 달과 별이 모두 포함된 곳.
이곳을 여행하려면 00선을 타야 된단다.
- 포로들을 잡아 두던 곳.
즉 포로들을 수용해 두던 곳이지.
- 깎아지른 듯한 언덕. 등산이나 여행을 갈
때는 0000근처에 가지 않도록 주위 해야 돼!
- 갓난00. 갓 태어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00 예수라고 부른단다.
-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
해안이나 해병이라고 부르기도 해.

〈지난달 정답〉

									동
									방
									박
								병	사
								아	
					갈	릴	리		
				유	대				
			고	랑					
		나	물						
이	발	사							
볼		렛							

어린이날을 위한 전도대회

2020년 4월 23일 12시 30분

풍성한 어린이 주일을 위해 셋별 유치부와 다니엘 유초등부 교사들이 함께 수변어름공원으로 전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교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교회 위치를 물어보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전도대회라 걱정도 많았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걱정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교회학교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투표한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BEST 5



30, 40, 50, 60, 70대

1위 현금

2위 여행(자녀와의 동반)

3위 자녀의 성전출입

4위 편지

5위 건강식품

순위에는 없지만 특별한 선물

간식 무한인크프린터기 아이패드 전동치솔 상품권 냉장고 밥솥 장막 좋은성적표

안과의자 의전함 건강한출산 부모돌아보기 나의자유시간 효도쿠폰 꿀잠

자녀들의관심 신발 부모님얼굴그림 부모님말씀잘듣기

큰글성경 프레임닝북

부모님의 선물을 고민 중이신 자녀분들은 유혜진권찰에게 연락주세요^^

special 스승의날

스승이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

스승의 날이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



교회 학교 교사 소개

ChurchSchool Teacher

교회 학교 교장



한승권 목사

샐별유치부



매일 매일의 행동을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듯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유치부가 되겠습니다 중보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소현 총무



송미정 선생님



이경애 회계



유진경 선생님



장원준 선생님

다니엘 유초등부



유하은 총무

2022년 영혼을 구원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시국이라 새로운 친구들
이 인도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럴 수록 더 힘내
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6학년 김은희



5학년 김성령



4학년 민이삭



3학년 조은희



2학년 박두식



1학년 강예원



서 기유영민



반 주전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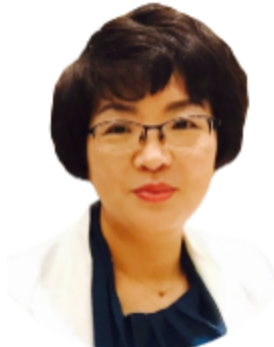




이영주 사모

인생의 3분의1을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각오하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되기는 하지만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교사로 학생회를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한사람 한사람 귀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임마누엘 학생들을 보며 뿌듯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옥순 집사



김연훈 청년

밀알 청년회



윤희자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학생을 신앙인으로 키우는 역할이 우선입니다. 타 지역에서 한 주를 살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2~3시간 거리를 매 주오는 청년들을 볼 때 감사와 뿌듯하면서도 더욱 깊은 사명을 느낍니다. 교사들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서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영혼을 찾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더 힘을 얻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교사는 더 낙타 무릎으로 지원하고 허락하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들을 위한 성경 구절

♥ 부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2: 24)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5-6)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 남편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잠5:18-19)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18:22)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7:3)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5:25)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28)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5:33)

♥ 아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엡5:22-24)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5:33)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3:18-19)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딤후2:4-5)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부활절 삼행시 이벤트 결과

시상 BEST3

최선자 집사

부 : 부흥하는 당진 순복음교회

활 : 활기 넘치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절 : 절대로 예수님만이 다시 사셨음을 전합니다.

장명희 집사

부 :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하나님

활 :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절 : 절절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김정애 집사

부 : 부요한 영혼 겸손하게

활 : 활기차지만 경건하여

절 : 절대적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상이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참여해 주신 삼행시는 현관에 공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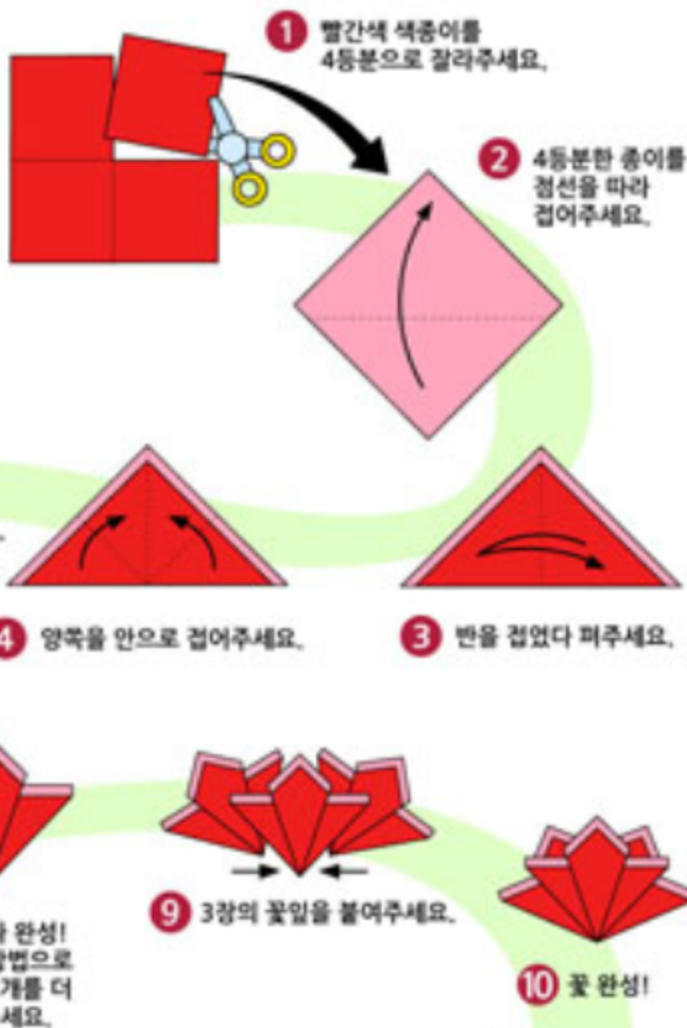


카네이션 만들기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이에요.
꽃과 꽃받침을 만들 빨간색 색종이 1장
초록색 색종이 1장을 준비해주세요.



완성!



5 꽃을 붙여주면 완성!



5

2022 |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어린이 주일 어린이 축제	2	3	4	5 어린이날	6	7
8 어버이 주일 루디아 헌신예배	9	10	11	12	13	14
15 교사 주일	16 교단 총회	17	18	19	20	21
22 부부 주일 부부 헌신예배	23	24	25	26 효도 여행	27	28
29	30	31				

공지사항

1. 5월 생활실천표어 -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2. 야외예배 / 가을에 합니다.
3. 족구대회 / 6월 4일(토) - 각 기관, 개별 출전
4. 교회중식 / 5월 1일부터 실시 - 교사, 찬양대, 봉사자

이달의 서적



저 자 : 원용일

출판사 : 브니엘(도)

책소개 : “신앙이란, 제가 확신하건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_ 에녹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에녹의 이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우소식

1. 출타 - 담임목사, 16일~19일 총회참석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 사 모 : 010-7747-5278

윤희자 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집사

유혜진 권찰

최하나 성도



우편번호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전화번호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 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당진순복음교회

